

金屬活字의 中國發明說에 관한 研究*

A Critical Investigation of the Claims over
China as the Inventor of Metal Movable Types

曹 炯 鎭(Cho, Hyung-Jin)**

◁ 목 차 ▷

- | | |
|---------------------------|--------------------------|
| 1. 緒 言 | 5. 金屬活字의 中國發明說에 대한
論評 |
| 2. 世界公認의 金屬活字와 그 發明
年代 | 6. 結 論 |
| 3. 中國學者의 金屬活字 中國發明說 | <참고문헌> |
| 4. 活字印刷術과 그 發明의 定義 | |

< 초 록 >

현재 전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금속활자의 발명은 고려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1377년에는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을 인쇄하였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학자들은 金代의 지폐 인쇄용 동판에 사용한 銅字(1154년)와 金代의 千佛銅牌(1148년)에 근거하여 금속활자는 중국인에 의하여 발명되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본 연구는 그 주장을 논평하고, 활자인쇄술에 관한 기본 개념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를 내렸다.

(1) 활자와 활자인쇄술은 宋代의 畢昇에 의하여 膠泥活字로 발명되었다.

(2) 활자인쇄술은 ① 활자의 제작, ② 조판, ③ 인쇄, ④ 해판과 재사용 등 네 단계의 원리를 갖추어야 한다.

(3) 畢昇의 교니활자와 교니활자인쇄술·고려인의 金屬活字는 완전한 발명이다. 木活字와 목활자인쇄술·금속활자인쇄술은 개량이다.

(4) 지폐 동판에 사용한 銅字와 千佛銅牌는 활자인쇄술로 간주할 수 없다.

끝으로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그 근거를 찾아서 억지로 합리화시키려는 목적성 연구는 옳은 연구태도가 아니다.

要語: 금속활자의 발명,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新印詳定禮文, 跋, 南明泉和尚頌證道歌, 跋, 지폐 동판, 御施策, 千佛銅牌, 활자의 정의, 활자인쇄술의 정의

* 이 논문은 2009년도 강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강남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chohj@kangnam.ac.kr)

접수일: 2009년 6월 1일 최초심사일: 2009년 6월 3일 심사완료일: 2009년 6월 9일

<ABSTRACT>

It is internationally acknowledged that metal movable types were invented by Koreans. And it is well documented that *Baekun whasang chorok puljo chikchi shimch'e yojol* was printed with metal movable types in 1377. However, Chinese scholars have recently claimed that the Chinese had first invented metal movable types. Their claims are based on the bronze characters in bronze plates used for issuing paper currencies in 1154 and Qianfo bronze plates in 1148 in the Jin Dynasty.

This study reviews their claims, and clearly defines the basic concepts of typography.

- (1) Types and typography were first invented in the form of clay types by Bi Sheng in the Song Dynasty.
- (2) Typography should consist of four distinct stages; that is, 1) production of types, 2) typesetting, 3) printing, and 4) disassembling of typeset plates and their reuse.
- (3) The clay types and clay typography by Bi Sheng and metal types by Korean are considered complete inventions, whereas wooden types, wooden typography and metal typography are considered improvements.
- (4) The bronze characters used in bronze plates for paper currencies and Qianfo bronze plates can not be accepted as a typography.

Finally, it is strongly argued that an attempt to justify the conclusion drawn without concrete evidences by applying far-fetched interpretation is not acceptable.

Key words: invention of metal types, *Baekun Whasang Chorok Puljo Chikchi Shimch'e Yojol*, *Sinin Sangjeong Yemun* postscript, *Nammyeongcheon Whasang Songjeungdoga* postscript, bronze plate for paper currency, *Yushice*, Qianfo bronze plate, definition of type, definition of typography

1. 緒 言

영국의 철학자 Francis Bacon(1561-1626)은 인류 문명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과학발명으로 지남침·화약·제지술·인쇄술 등의 네 가지를 들었다. 그 후 영국의 사학자 Arnold Toynbee(1889-1975)는 이 네 가지의 과학발명이 공교롭게도 모두 중국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하였다.

인쇄의 개념에 대하여 동양과 서양은 약간의 인식차이를 보인다. 동양은 목판 인쇄와 활자인쇄를 모두 인쇄로 간주하지만, 서양은 활자인쇄만을 인쇄로 간주한다. 목판인쇄술의 발명에 대하여는 이를 발명한 주체·시기·장소 등을 알 수 없다. 다만 인쇄술 발명의 전제가 되는 목版的 사용·제지술·탁본·인장·불인의 유행·부적의 사용 및 당시 사회의 요구와 현존 초기 인쇄물 등에 근거하여 대략 서기 700년경에 발명되었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활자인쇄술은 목판인쇄의 불편한 점, 즉 조각한 문자를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는 死字인쇄라는 점을 개량하기 위하여 발명되었다. 이는 宋代의 畢昇에 의하여 膠泥活字로 慶曆年間(1041-1048)에 발명되었다. 그 원리는 「夢溪筆談」에 수록되어 있다.¹⁾ 그 후, 목활자는 元代의 王禎에 의하여 安徽省 旌德縣尹의 재임(1295-1300) 중에 출현하였으며, 大德2(1298)년에 「旌德縣志」를 인출하였다.²⁾ 금속활자는 고려인에 의하여 발명된 후, 1377년에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直指」로 약칭)을 인출하였다.³⁾

이 같은 인식에 대하여 1990년대에 이르러 일대 도전적인 주장이 나타났다. 중국인이 발명했다는 목판인쇄술에 대하여 일부 한국의 학자⁴⁾는 無垢淨光大陀

1) 沈括, 夢溪筆談, 卷18, 技藝, 板印書籍.

2) 王禎, 農書, 卷22, 造活字印書法.

3) 현존 最古의 금속활자본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MSS 극동부, 109) 권말 간기: 宣光七(1377)年丁巳七月 日 淸州牧外興德寺鑄字印施. 「直指」는 UNESCO에 의하여 2001년 9월 4일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4) 손보기, 한국인쇄기술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편, 「한국문화사대계 (서울: 고려대학교, 1970), 974-975.; 김성수, “한국목판인쇄의 기원연대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10(1994. 12), 425-478.

羅尼經」(현재는 704-751년 사이에 인출된 것으로 잠정 결론)에 근거하여 목판인쇄술이 한국인에 의하여 발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王禎이 처음 제작한 목활자에 대하여는 黑水城에서 출토된 西夏文 목활자본 「德行集」(1194-1205년 사이에 인출) 등⁵⁾에 의하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고려인이 발명한 금속활자에 대하여 潘吉星은 金代의 지폐 인출용 동판에 사용한 銅字(1154년)에 근거하여,⁶⁾ 魏志剛은 金代의 千佛銅牌(1148년)에 근거하여⁷⁾ 금속활자는 중국인에 의하여 발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금속활자와 관련하여,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고려인 발명에 대한 중국측 학자의 반론에 아무런 논박이 없다면, 이 반론이 정론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학자가 주장하는 금속활자의 중국발명설에 대하여 논평하고, 아울러 활자인쇄술에 관한 기본 개념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2. 世界公認의 金屬活字와 그 發明年代

2.1 世界公認의 金屬活字와 그 印本(1377년, 「直指」)

현재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최초의 금속활자와 그 인본 서적은 한국의 조선시대 태종3(1403)년에 주조한 “癸未字”와 「十一家註孫子」⁸⁾ 등 그의 인본 서적이다. 이는 UNESCO가 현존 인본 서적의 실물과 「朝鮮王朝實錄」·「增補文獻備考

5) 史金波, 雅森吾守爾, 「中國活字印刷術的發明和早期傳播」(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0), 42-43.

6) 潘吉星, 論金屬活字技術的起源, 「科學通報」 43:15(1998. 8), 1583-1594. 이 논문을 약간 수정하여 「中國出版」 1998:11(총제95기)(1998. 11), 42-45와 1998:12(총제96기)(1998. 12) 40-43에 다시 게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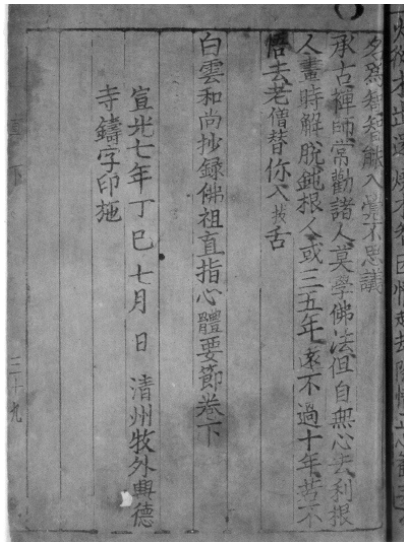
7) 魏志剛, 關於我國金屬活字版(公元1148年)技術與物證. 中國印刷博物館編, 「中國印刷史學術研討會文集(1997)」(北京: 印刷工業出版社, 1997), 130-133.

8) 지금까지 알려진 계미자본은 14종이 있다. 그 중 가장 이른 것이 1409년에 인출된 「十一家註孫子」이다.

考」 및 기타 개인 문집 등에 수록된 주자발 등 문헌기록에 근거하여 공인한 것이다. 그러나 금속활자에 대하여, 서양에서는 여전히 독일의 Gutenberg가 1455년 경에 발명하였다고 여기고 있으며, 동양에서는 고려인이 13세기 초에 발명하였다고 여기고 있다.

1972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UNESCO가 제정한 세계 도서의 해를 기념하기 위하여 도서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 전시회에 『직지』를 출품하였는데,⁹⁾ 그 권말에 “宣光七(1377)年丁巳七月 日 淸州牧外興德寺鑄字印施”라는 간기가 있다(圖1).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금속활자를 Gutenberg가 발명하였다고 여기던 서양 유럽의 여러 나라는 모두 금속활자는 한국의 고려인에 의하여 발명되었으며, Gutenberg보다 78년이나 이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현재까지 금속활자의 발명 문제에 대하여 세계가 공인한 한국의 고려인이 발명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하다.



<圖 1>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卷下 제39葉上, 刊記.

9) Bibliotheque Nationale, Le Livre, Paris, 1972.; 프랑스 국영 TV, 1972. 6. 1. 20:00 뉴스.

2.2 韓國學者의 金屬活字 發明年代說(1232년 이전)

인쇄 발달사를 연구하는 한국의 학자는 꾸준히 새로운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¹⁰⁾

1) “複”자 실물(圖2)

이는 고려활자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합금성분에 의하면 1126년부터 1232년 사이에 주조된 것이다.



‘복(複)’자 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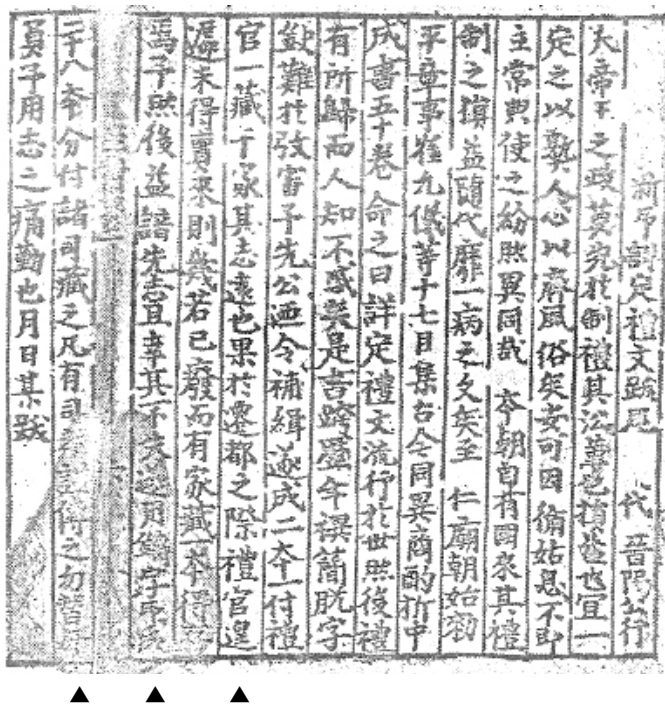
‘전(顚)’자 활자

<圖 2> 複·顚. 고려활자라고 알려짐

2) 「新印詳定禮文」跋

東國李相國後集 卷11에 수록된 李奎報가 晉陽公을 대신하여 쓴 新印詳定禮文」跋尾에 “果於遷都(江華島)之際(1232년) …… 遂用鑄字印成二十八本”(圖 3)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발문과 기타의 역사기록에 의하면 「新印詳定禮文」 50권을 활자를 주조하여 28부를 인출하고 또 이 발문을 쓴 것이 1234년(晉陽侯 책봉)부터 1241년(이규보 사망)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강화도 천도 이후는 몽고 병이 침입한 전란 중이므로 금속활자의 주조기술을 발명할 겨를이 없을 때다. 그러므로 금속활자의 주조 및 인쇄기술은 강화도 천도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10) 曹炯鎭, 「中韓兩國古活字印刷技術之比較研究」(臺北: 學海出版社, 1986), 34-3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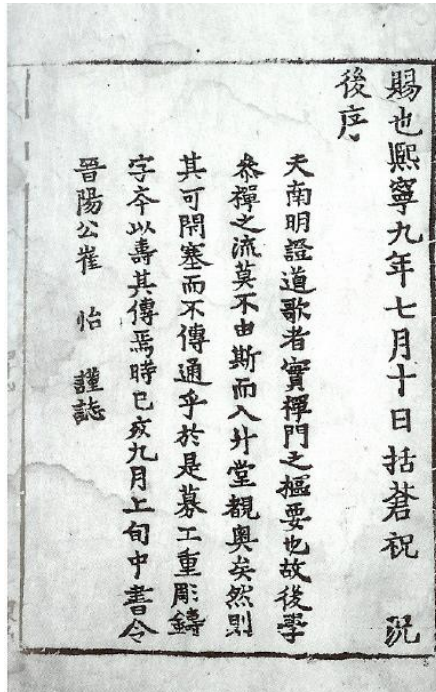


<圖 3> 「東國李相國後集」에 수록된 「新印詳定禮文」跋尾

3) 「南明泉和尚頌證道歌」跋文

고려 주자본의 복각본인 南明泉和尚頌證道歌, 「證道歌」로 약칭, 현존)의 권말에 다음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於是募工重彫鑄字本, 以壽其傳焉, 時己亥九月上旬, 中書令晉陽公崔 怡 謹誌”(圖 4). “己亥”는 己亥의 잘못으로 1239년이다. “募工重彫鑄字本”의 뜻은 주조활자본을 새로이 복각한다는 것이므로, 복각본의 저본이 되는 주자본은 마땅히 이 이전이 되어야 하며, 아마도 강화도 천도 이전에 이미 주자 인쇄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문장을 달리 해석하여 “於是募工重彫, 鑄字本以壽其傳焉(이에 장인을 모집하여 중조함으로써, 주자본으로 하여금 오래 전해지도록 하였다.)”로 해석하면 복각본의 저본이 되는 주자본은 1239년에 인쇄한 것이 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한국 측 학자는 고려인이 1232년 강화도 천도 이전에 금속활자를 발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圖 4> 「南明泉和尚頌證道歌」(복각본), 제44葉上, 跋文.

3. 中國學者의 金屬活字 中國發明說

3.1 潘吉星의 金屬活字技術 起源說

潘吉星은 자신의 논문¹¹⁾에서 중국이 금속활자를 발명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紙幣銅版에 사용한 銅字(115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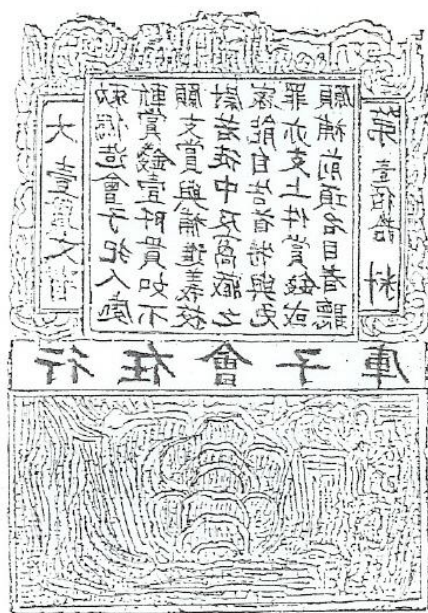
중국의 동판인쇄는 唐代 開元年間(713-741)까지 소급할 수 있는데, 이 동판인쇄와 비금속활자인쇄를 기초로 하여 12-13세기부터 금속활자인쇄가 발전하였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속활자는 한 글자만 있는 금속인판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여러 문자나 그림을 포함한 금속인판을 주조할 수만 있다면 날개의 금속활자는 손쉽게 주조해 낼 수 있다. 다시금 활자기술의 원리를 가하여 금속활자 인판을 배열하여 인쇄에 사용하면 바로 금속활자 인쇄가 된다. 다시 말하면 금속활자인쇄는 동판인쇄와 비금속활자 기술의 기초에서 12-13세기에 발전한 것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일찍 지폐를 발행한 국가인데, 동판인쇄는 또 대규모로 지폐의 인쇄발행에 사용되었다. 宋代와 金代의 지폐는 모두 주조한 동판으로 특수하게 만든 종이에 인쇄하였는데, 판면에는 지폐명·가치·유통구역·발행기관·제조시기·위조엄금 및 고발자 포상 등 문자가 장식용 문양도안과 함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사전에 동판에 주조된 것인데, 다만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기타의 조치로 판면을 찍는 것 외에도 지폐의 낱장마다 字號·料號 등의 보안 일련번호를 주었고, 동시에 발행수량을 표시하였다. 이밖에도 제조·발행기관 책임자의 보안 서명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기타의 내용과 함께 동시에 동판에 주조된 것이 아니고, 동판에 오목한 홈을 남겨 두었다가 인출할 때 그에 상응하는 문자를 활자로 오목한 홈에 채워 넣어서 완전한 인판의 판면을 형성할 수 있었다. 활자를 사용한 까닭은 채워 넣은 활자의 자적이 모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인판은 구리로 주조하였으므로 인판에 채워 넣은 활자는 당연히 구리로 주조한 동활자일 것이다. 그러므로 宋·金代의 지폐는 동판인쇄와 동활자인쇄의 두 가지 기술이 결합된 산물이며, 동활자도 역시 지폐의 발행을 따라서 장기간 대규모로 응용될 수 있었다.

「宋史」食貨志에 의하면 北宋시대에는 1023년부터 정부에 “益州交子務”를 설치하여 관영의 “交子”를 발행하였으니, 이것이 곧 최초의 지폐다. 1107년에는

11) 潘吉星, 論金屬活字技術的起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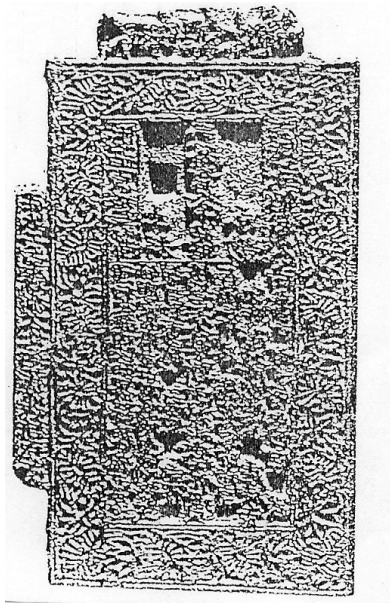
交子務를 “錢引務”로 바꾸고 지폐도 “錢引”으로 개칭하였다. 그러나 북송의 인판은 오늘날 전해진 것이 없다. 南宋(1127-1279)도 “關子”와 “會子”를 발행하여 법정통화로 사용하였다. 紹興 31(1161)년부터 乾道 4(1168)년 사이에 杭州에서 인판을 주조하였다(圖5). 그 판면의 상부에는 “壹佰拾”의 세 문자가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자형이나 크기가 “第”·“料”와는 분명하게 달라서 인판을 주조한 후에 설치한 활자임을 알 수 있다. 金代에 인쇄한 지폐는 1154년에 시작되었으니, 이때부터 이미 동활자를 지폐인쇄에 사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圖 5> 杭州에서 주조한 紙幣銅版
(紹興 31(1161)年에서 乾道 4(1168)年 사이)

더 구체적인 증거는 金代 泰和年間(1201-1209)의 交鈔인판 탁본과 1213-1214년 山東 東路의 壹拾貫 交鈔인판에 모두 오목한 홈이 남아있는 점이다. “貞祐寶券”(1215-1216) 五貫인판의 탁본은 그 판면의 상부에 字料를 표시하는

작은 문자인 “轉”는 삽입해 넣은 동활자며, “字號” 위에도 마땅히 활자가 하나 있어야 하지만 끼워 넣지 않았고, 이밖에도 5-6곳의 花押은 그에 상응하는 활자를 끼워 넣었을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1215년에 주조한 陝西 東路의 壹拾貫 交鈔 인판(圖 6)도 역시 6곳의 오목한 홈이 있는데, 이는 동활자를 끼워 넣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字號・字料・花押 등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元・明시대의 지폐 역시 동일하다. 이상 현존 宋・金代の 지폐 인쇄용 인판은 중국의 금속활자 기술이 12세기 초기에 시작하여 12-13세기에 광범하게 지폐 인쇄에 사용되었으며, 사용된 동활자로서 년대가 나타난 초기의 실물은 1201-1209년임을 말하고 있다.



<圖 6> 金代 陝西東路 壹拾貫交鈔 印版(1215年 鑄造).

이밖에 宋代 謝深甫의 「慶元條法事類」(1202년) 卷30에 기록된 “料例, 以「千字文」爲號”를 인용하면서, 「千字文」은 중복된 문자가 없기 때문에 일련번호로 적합하며, 金代의 지폐인판에 사용한 활자는 宋代의 방법을 답습하여 그 일련번

호용 활자는 「千字文」에서 취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2) 文獻記錄

문헌자료도 제시하고 있다. 元代 黃潛(1277-1357)의 「金華黃先生文集 卷41, 榮祿大夫・大司空・大都大慶壽寺住持長老・佛心普慧・大禪師・北溪延公塔銘에 기록된 “將鏤銅爲版以傳(구리를 판으로 조각하여 전한다)”을 동활자로 해석하였다.

3) 錫活字(1186년)

그는 또 南宋 景定 5(1264)년 “金銀現錢關子”인판이 주석합금으로 제작된 점과 南宋 孝宗 淳熙 13(1186)년에 주석판으로 불경・부적 등을 인쇄한 점을 들어 남송시대에 주석활자 인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2 潘吉星과 魏志剛의 金屬活字 韓國發明說 부인

潘吉星과 魏志剛은 그들의 논문¹²⁾에서 한국이 금속활자를 발명하였다는 한국 측 학자의 주장을 부인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複”자 실물

한국 측 학자들이 근거하고 있는 이 실물 물증에 대하여, 그는 네 가지의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① 발굴조사보고서가 없어서 믿을 수 없다. ② 금속의 합금성분이 비록 海東通寶(1102년)와 비슷하지만, 합금성분이 비슷하다 하여 반드시 동일 시대의 산물은 아니며 합금성분이 비슷하면서 시대가 다른 사례도 적지 않다. ③ 이 문자는 드물게 쓰이는 벽자이거나 또는 “覆”의 이체자로서 10세기 이후의 문헌에 거의 보이지 않는다. ④ 이의 외형이 가지런하지 않고 배면에는 매우 큰

12) 潘吉星, 魏志剛, 金屬活字印刷發明于韓國嗎 「中國印刷」 1999:1(總第73期)(1999. 1), 55-59.

타원형 홈이 오목하게 있으며, 평양국립역사박물관이 소장¹³⁾하고 있는 “旃”(圖 2)도 역시 동일하다. 이것이 활자라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즉 양각반체자로서 자면이 평평해야 한다. 정면은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각 변의 각도가 90°여야 한다. 부분 또는 전체의 몸체가 입방체 또는 장방체여야 한다. 이점에서 이는 활자가 갖추어야 할 형태적인 특징을 갖추지 못하였다.

2) 「新印詳定禮文」과 「證道歌」의 跋文

이규보가 진양공을 대신하여 행한 “「新印詳定禮文」 발미”에 대하여, 두 가지의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① 이 발문은 “新印詳定禮文 跋尾 代晉陽公行”이라고 제하고 있는데, 이규보가 이 발문을 기초할 때에 최이는 晉陽侯였으며 1242년에야 작위가 진양공으로 승진하였는데, 이규보는 이보다 이른 1241년에 죽었으므로 진양공을 대신하여 발문을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규보가 쓴 것이라면 진양공이라고 칭하지 않아야 하며, 진양공이라고 칭하려면 이규보의 대필일 수 없다. 이 사료의 유용성과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② 이때의 고려왕조는 조그마한 강화도로 총망히 피난하여야 하는 전란시기에 「詳定禮文」 28부를 인출하기 위하여 강화도에서 대량의 금속활자를 주조할 가치가 있으며 또한 주조할 가능성이 있는가?

「證道歌」의 권말에 수록된 “中書令晉陽公崔 怡 謹誌”의 발문에 대하여는 다섯 가지의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① 최이의 중간본 및 저본이 된 “주자본”은 모두 오늘날 전하지 않고 있다. 일산문고 소장의 현존본은 후기의 목판본으로 비록 활자본은 아니지만 각 행의 문자배열이 가지런하지 않고 각 문자의 크기가 고르지 못하여 목판본의 보편적인 특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측 학자가 최씨의 목판본은 “주자본”을 저본으로 했고, 후세의 목판본(현존본)은 다시 최씨의 목판본을 저본으로 했다고 해석하는 것을 추측일 뿐이며 증거가 부족하다. ② 己亥(1239)년에 최이는 진양후였는데, 어떻게 스스로 “진양공”이라고 칭할 수 있는가? 역사 사실에 어긋나고 있다. ③ 발문 중에 여러 곳에서 있어서

13) 기실은 개성 역사박물관 소장이다.

는 안 될 오자가 보인다. 예를 들면 恬蒼을 “括蒼”으로, 夫를 “天”으로, 升을 “外”로 己亥를 “巳亥”로, 閉塞을 “閉塞”으로 했는데 이 문자는 일찍이 사용하지 않고 있고, 彫를 “雕”로 했는데 이 이체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④ 詳定禮文 발에 의하면 주자는 1232년 강화도 천도 이후에 시작하였고, 證道歌 발에 의하면 주자는 강화도 천도 이전에 시작하였다 하여, 이 두 발문은 스스로 모순일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모순을 보이고 있다. ⑤ 만약에 최이가 1234-1238년 사이에 강화도에서 이미 “주자”로 「禮文」을 인출하였다면, 1239년에 「證道歌」를 간행할 때, 왜 이 기존의 금속활자를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강화도에서 장인을 모집하여 목판을 새겼으며 그것도 “주자본”을 모각해야 했는가? 이는 「詳定禮文」이 활자판이 아닌 주조한 동판이거나, 또는 「證道歌」 주자본이 宋朝에서 전래된 것이 아니라면 말이 통하지 않는 말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潘吉星의 결론은 宋代부터 明代初期(12-14세기)의 지폐 인쇄 과정에서 중국의 금속활자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다는 것이다.

3.3 기타의 金屬活字 起源說

1) 「御施策」(元代 至正 初年 1341-1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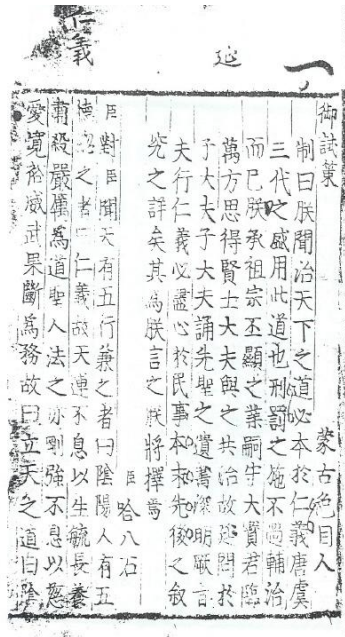
張秀民은 일찍이 중국 국가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御施策」(不分卷, 1책, 27274호, 4817)(圖7)을 사변의 모서리가 크게 벌어져 있고, 문자의 가로줄이 맞지 않으며, 먹색의 농담이 고르지 않은 점과,¹⁴⁾ 책지의 지질이 潔白厚實한 조선지와는 달리 송원판에서 많이 보이는 특징과,¹⁵⁾ 조선의 동활자와는 자형과 크기가 같지 않은 점에 근거하여 元代의 동활자본으로 감정하였다.¹⁶⁾ 이에 대하여 谷祖

14) 張秀民, 中朝兩國對於活字印刷術的貢獻. 「(天津)大公報」, 1953년 2월 20일 史學週刊, 제3면.

15) 張秀民, 中國印刷術的發明及其對亞洲各國的影響. 「光明日報」, 1952년 9월 30일; 張秀民, 「張秀民印刷史論文集」(北京: 印刷工業出版社, 1988), 19, 31.

16) 張秀民, 銅活字的發明與發展. 「光明日報」, 1954년 3월 6일 제3면.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元代木活字本으로 수정하였다. 張秀民, 「張秀民印刷史論文集」, 214.

英은 字體와 지질에 근거하여 조선활자본으로,¹⁷⁾ 蔡美彪는 15세기 중엽의 조선 활자본으로,¹⁸⁾ 房兆楹은 1333-1368년 사이에 인출된 조선본으로 감정하였다.¹⁹⁾ 그러나 潘吉星은 長瘦形 印書體・크게 벌어진 사변의 모서리・고르지 못한 먹 색농담・빠져버린 문자 배열・작은 활자의 보자・흑구 쌍어미의 판심・책지의 厚薄・지색・지질・紙紋 등의 특징에 근거하여 장수민의 주장에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元代의 至正年間(1341-1367)의 초기인 1341-1345년 사이에 北京에서 출판되었다고까지 하였다.²⁰⁾



<圖 7> 「御試策」(中國國家圖書館 所藏), 제1葉上.

17) 谷祖英, 銅活字和瓢活字의 問題. 『光明日報』, 1953년 7월 25일, 史學, 제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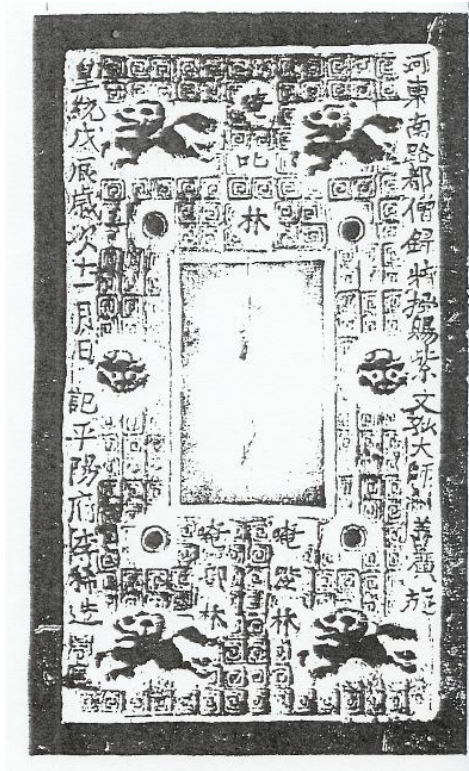
18) 蔡美彪. 『光明日報』, 1954년 1월 9일. 史學, 제21호.

19) Fang Chao-Ying. On Printing in Korea, (1967), cited by Tsien Tsuen-Hsuin, Paper and Printing. See: Joseph Needham,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V:1(Taipei: Caves Books, 1986), p.327.

20) 潘吉星, 「中國・韓國與歐洲早期印刷術의 比較」(北京: 科學出版社, 1997), 88-90.

2) 金代의 千佛銅牌(1148년)

羅振玉(1866-1940)이 편찬한 「金泥石屑」(2卷, 附說1卷)에 “金千佛銅牌”(圖 8)를 수록하고 있는데, 附說에는 이에 관한 설명이 다음과 같이 있다:



<圖 8> 金代의 千佛銅牌(1148年).

千佛銅牌는 대부분이 문자가 없는데 이것은 皇統紀年과 李稀가 제작하였다는 題字 1행이 있는데, 활자로 배열하여 된 것이므로 활자판으로서 현존하고 있는 가장 앞선 것이다. 내가 일찍이 고허자 하나를 입수하였는데, 석고로 만들었고 한 치 남짓 정도로 얇으며 위에는 손잡이가 있어서 쥔 수 있는데, 北宋의 것으로 의심된다. 沈存中은 畢昇이 활자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王禕은 「農書」에서 그 방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손잡이가 있어서

펠 수 있다고는 하지 않고 있고, 또 점토로 활자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점토는 인쇄에 부칠 수 없으니, 이제 석고를 점토로 오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부록으로 기록하여 인쇄의 원류를 연구하는 자에게 알리고자 한다.²¹⁾

戈公振은 中國報學史 에서 이를 인용하여 “金代의 金屬活字版”이라고 하였다.²²⁾ 魏志剛은 「中國報學史」에 인용된 것을 다시 인용하면서 중국이 金代에 금속활자를 발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제시한 근거는 도판의 여러 곳에 높낮이가 고르지 못하고 문자배열이 빼놓여진 점이다.²³⁾

4. 活字印刷術과 그 發明의 定義

4.1 活字와 活字印刷術의 定義

중국 측 학자의 의견을 보면 먼저 활자와 활자인쇄의 정의를 내려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느낀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기능을 갖추기 이전에는 활자의 전제 단계인 인장으로 간주해야 하며, 어떠한 기능을 갖춘 이후에야 비로소 활자로 간주할 수 있는가를 구별해야 한다. 활자와 활자인쇄의 정의는 畢昇의 활자발명 원리에서 정리해 낼 수 있다. 沈括의 「夢溪筆談」, 卷18, 技藝, 板印書籍條에 수록된 내용은 네 단계로 구분된다.

제1 단계는 製作(날개로, 복수로)이다. “膠泥로 문자를 새기되 돈잎처럼 얇게 하고 매 문자마다 하나로 만들어서 불에 구워서 굳게 한다……매 문자마다 모두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之・也 등 문자는 20여 개가 있어서 한 판 안에서 중복될 경우에 대비한다……기이한 문자 등 준비되지 않은 것은 얼른 조각하여

21) 羅振玉, 「金泥石屑」, 卷上, 金之類(上海: 倉聖明智大學, 1916년 영인선장본, 「藝術叢編」 1-6, 傅斯年圖書館古籍線裝書 991.05 401 V.1-6, 및 933.2 909.; 1916년 上虞羅氏영인선장본, 「楚雨樓叢書」初集: 4. 傅斯年圖書館 990.8 909 V.4).

22) 戈公振, 「中國報學史」(上海: 商務印書館, 1927. 1928. 1935. 1955. 1999. 대만판).

23) 魏志剛. 關於我國金屬活字版(公元1148年)技術與物證.

짚볼로 구우면 순식간에 완성된다. 만약에 복수로 갖추지 못하면 거의 인쇄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매 문자를 낱개로 만들어야 하고 또 복수로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곧 활자다.

제2 단계는 組版(한 판의 활자를 조립)이다. “우선 첩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송지·밀랍·종이 재 등으로 채운 다음, 인쇄하려면 인틀을 첩판 위에 안치한 후, 활자를 가득 배열한다. 인틀에 가득 차서 한판이 되면, 볼로 이를 굽는다. 인납이 약간 녹을 때 평평한 판자로 활자의 문자면을 누르면 활자가 솟돌처럼 평평해진다. 만약에 2-3부만 인쇄하려면 간단하지 않지만 수 십 백 천부를 인쇄하려면 지극히 신속하다.” 다시 말하면 원고대로 한 판의 활자를 배열하되 자면을 고르게 하고, 견고하게 하여 인출에 부친다. 이 단계는 활자인쇄를 위하여 생략할 수 없으며, 또한 전체의 활자인쇄 과정에서 가장 숙련된 기술과 가장 긴 시간을 필요로 하여 활자의 제작보다도 더 중요하다.

제3 단계는 印出(墨汁을 칠하고 찍어내기)이다. “평상시에 두개의 첩판을 만들어서 한판이 인쇄할 때 다른 한 판은 활자를 배열하니, 이 인판이 끝나면 다음 판이 갖추어져서 번갈아 사용하면 순식간에 완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조판이 끝난 인판에 묵즙을 칠하고 종이를 얹어서 찍어내는 것이다. 이 과정은 목판인쇄와 별 차이가 없다.

제4 단계는 再使用(解版하여 재사용에 대비)이다. “다 인출했으면 다시금 볼로 인납을 녹여서 손으로 털어내면, 활자가 떨어져 나와서 인납도 묻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으면 종이로 붙여두는데 한 운을 한 첩으로 하여 나무 칸 상자에 보관한다.” 다시 말하면 인쇄가 끝난 인판의 활자를 해판하여 원위치 시키고 보관하여 인쇄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만약에 조판 등의 문제로 인쇄가 끝난 후, 해판하여 재사용할 수 없으면, 활자인쇄의 실험작으로는 간주할 수 있어도 진정한 활자인쇄로는 간주할 수 없다. 반드시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래서 死字가 아닌 活字이다. 활자인쇄를 발명한 주된 이유가 목판상의 문자가 고정된 위치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는 死字印刷이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이상을 종합하며 활자인쇄의 원리를 분석한 결과 상술한 네 단계를 갖추어야

비로소 활자인쇄로 성립될 수 있고, 만약에 어느 한 단계라도 갖추지 않으면 활자인쇄로 간주할 수 없다.

4.2 活字와 活字印刷術 發明의 定義

활자인쇄는 상술한 네 단계를 거쳐야 하고 또 그 결과물을 인출해 낼 수 있어야 활자의 제작도 활자인쇄술도 성공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 결과물을 인출해 내는 데에 실패한 활자는 비록 제작해 내었다 할지라도 실험작으로 밖에 간주할 수 없으며 성공한 활자로는 인정할 수 없다. 활자는 비록 성공적으로 제작하였다 할지라도 인출에 실패하였다면 그 의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활자인쇄에 우선 성공하여야 비로소 그 활자가 발명인가 아닌가를 검토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 활자인쇄의 기술이 발명인가 아닌가도 검토할 수 있다.

발명은 그 대상물 또는 기술을 완성함에 있어서 이념이나 원리상에서 과거에 없던 새로운 독창이 발현되어야 한다. 활자의 경우는 이를 제작하는 과정이 재질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므로 그 제작원리의 독창성 여부에 따라 발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활자인쇄술의 경우는 인쇄 과정상의 기술적 독창성 여부에 따라 발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활자와 활자인쇄술의 발명을 구분하는 이유는, 활자의 제작 원리와 활자인쇄술의 원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宋代의 畢昇이 활자인쇄술을 발명할 때 사용한 재료는 교니로써 조각의 방법으로 날개의 활자를 제작하였다. 이는 완전한 제작원리의 독창이므로 교니활자는 마땅히 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니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은 네 단계라는 인쇄원리의 독창이므로 교니활자인쇄술도 마땅히 발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사용한 활자의 재료는 목재다. 즉 12세기의 西夏文 목활자와 元代 王禎의 목활자다. 이 목활자의 제작방법은 의문의 여지없이 조각이다. 그런데 畢昇의 교니활자의 제작방법이 조각이며 또 목활자를 실험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백 년 이전부터 이미 목판을 조각해 왔기 때문에 목활자의 제작방법 상 새로운 원리가 없으므로 목활자는 발명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만약 발명으로 간주한다면

곧 畢昇의 것일 것이다. 이 목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은 교니활자인쇄술과 같은 원리이므로 목활자인쇄술은 발명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개량으로 간주할 수 있다.

고려인이 제작한 金屬活字의 제작방법은 鑄造다. 먼저 어미자를 만들고 이것으로 주형을 제작하여 금속용액을 주입한 후, 마무리 손질을 하여 완성한다. 이 제작원리는 교니활자나 목활자와 완전히 다르다. 그러므로 고려인이 제작한 금속활자는 발명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금속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은 교니활자인쇄술과 같은 원리이므로 금속활자인쇄술은 개량으로 간주할 수 있다.²⁴⁾

5. 金屬活字의 中國發明說에 대한 論評

5.1 紙幣印出用 銅版에 병용한 銅字

동판으로 지폐를 인쇄할 때 동판의 홈에 끼워넣어서 사용한 낱개의 銅字는 활자인가 아닌가? 이 문제는 전술한 활자인쇄의 원리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지폐인쇄용 동판에 병용한 몇 개의 銅字는 활자인쇄의 제1·제2 단계의 원리와는 관계되지 않고, 제3·제4 단계의 원리만이 관련된다. 특히 제1

24) 금속활자인쇄술의 발명 여부에 관하여, 지금까지는 활자의 제작 목적이 서적 인쇄에 있고 인쇄에 성공해야 활자 제작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활자와 인쇄술을 동일시하여 금속활자와 금속활자인쇄술을 모두 발명이라고 하였다. 아직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는 학자가 적지 않다. 그러나 필자는 금속활자와 금속활자인쇄술을 세밀히 구분하여 각각의 기술적 원리와 이념을 살피고자 한다. 왜냐하면 금속활자는 금속활자인쇄술의 기술 과정에서 제작 영역에 속하며, 인쇄술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기술은 조판 영역이다. 금속활자는 어미자 제작 - 주형 제작 - 금속용액 주입 - 수정 완성의 과정을 통한 주조라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제작하였으므로 교니활자나 목활자의 제작 방법인 조각과 달라서 발명 입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금속활자인쇄술은 그 원리가 활자 제작 - 조판 - 인출 - 해판 후 재사용이라는 기술적 과정을 거친다. 이 원리는 교니활자나 목활자인쇄술과 비교할 때 새로운 이념의 도입은 없다. 다만 조판 방법·목줄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기술적 발전은 발명이라기보다는 개량이라고 판단한다. 이는 진공관과 진공관을 이용한 라디오, 트랜지스터가 각각의 원리에서 신개념을 도입함에 따라 발명이라고 하지 만,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발명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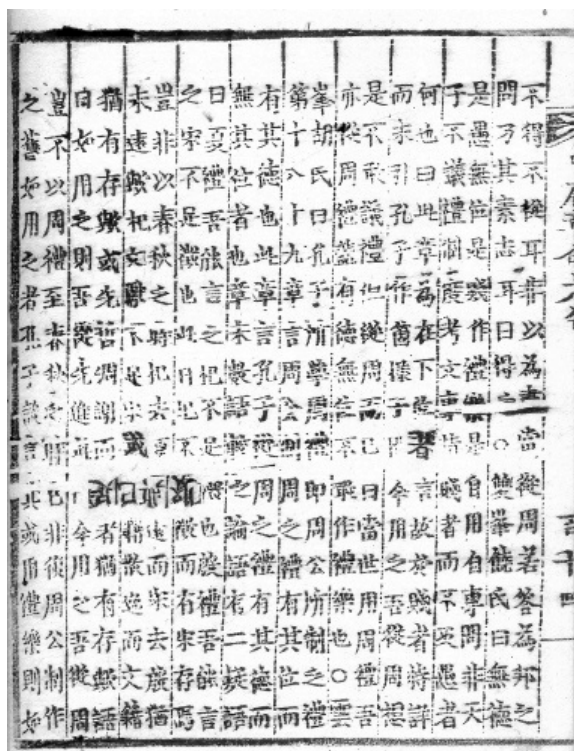
단계의 제작원리에 관하여, 이 동판은 “『千字文』의 중복된 문자가 없는 것”을 병용하여, 문자의 중복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활자의 개념이 없다. 이는 곧 오히려 활자인쇄의 원리를 완전히 위반한 것이다. 이 점에서 활자인쇄는 결코 동판인쇄에서 발전해 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중국 측의 여러 학자들도 활자인쇄는 목판인쇄에서 발전해 온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²⁵⁾ 만약에 문자의 중복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개념이 없는 점만 본다면, 인장의 범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또 낱개의 금속활자는 한 글자만 있는 금속인판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문자나 그림을 포함한 금속인판을 응용하여 한 글자만 있는 금속인판, 즉 낱개의 금속활자를 주조한다 해도, 이는 동판의 응용 범주에 속할 수는 있어도 활자의 응용은 아니다.

제2 단계인 조판원리에 관하여, 이 동판은 한두 개의 낱자를 홈에 채워 넣는 문제만 있을 뿐, 다수의 활자를 배열하여 조립하여야 한다는 문제는 없다. 潘吉星이 스스로 언급한 중에도 역시 “오목한 홈에 채워 넣기(填塞・填充), 끼워 넣기(嵌入), 집어넣기(放入)” 등의 단어만 있을 뿐, 배열해 넣는다는 말은 없다. 이는 곧 潘吉星 자신도 마음속으로는 부지불식간에 이 동판은 인판에 여러 개의 활자를 배열한 것이 아니라 오목한 홈에 한두 개를 채워 넣어서 활자인쇄로 간주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만 건강부회하여 활자인쇄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王禎의 『農書』 造活字印書法도 “배열(排)”을 언급했을 뿐이며, “채우기(填)”나 “집어넣기(放)”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다수의 활자를 배열하여 인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동판을 만약에 활자판으로 간주하려면 기타의 문자까지 모두 동판을 이용하지 말고 활자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활자인쇄로 간주할 수 없다.

필자는 목판본 『中庸章句大全』(不分卷, 1책, 四周單邊, 10行18字, 小字雙行, 白口, 二葉花紋單魚尾, 총 145엽, 권말에 “戊子新刊嶺營藏板”의 간기가 있다.)을 소장하고 있는데, 제 114엽 하에는 마모가 심하여 6개의 小字(3行11字 右의 “者”・7行12字 左의 “賢”・8行 11字 左의 “或”・8行 12字 右左의 “典已”・9行

25) 史金波, 雅森吾守爾, 『中國活字印刷術的發明和早期傳播』, 12.

12字 右의 “足”)를 파내고 새로 조각한 문자를 끼워 넣어서 먹색이 주변의 문자보다 매우 진하다. 특히 그 중 4개의 문자(賢·典·巳·足)는 180° 거꾸로 되어 있어서, 이는 끼워 넣은 것이며 교정을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圖9). 지폐인쇄용 동판에 병용한 동자를 만약에 활자로 간주하고, 또 이 동판을 활자판으로 간주한다면, 이 中庸章句大全 에 끼워 넣은 木字도 활자로 간주해야 하고, 이 제114엽도 활자판으로 간주해야 하지 않겠는가?



<圖 9> 「中庸章句大全」(朝鮮戊子新刊嶺營藏板), 제114葉下.

더 나아가 이 동판에 병용한 낱개의 동자를 만약에 발명으로 간주하려면 마땅히 그 제작방법에 새로운 원리를 갖추고 있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

제작방법이 만약에 조각한 것이라면 이는 곧 발명이 아니고 응용 또는 개량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宋代와 金代 초기의 지폐동판에 병용한 동자는 그 구체적인 제작방법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明代 江蘇 無錫지역의 華씨와 安씨 가문이 제작한 朱錫활자는 그 제작방법이 조각이다.²⁶⁾ 이는 시대가 늦어서 이미 발명 운운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시대가 이르다고 가정한다 해도 교니활자나 목활자와 같은 조각방법을 이용하였으므로 발명으로는 당연히 간주할 수 없고, 개량으로도 간주할 수 없으며, 단지 호기심의 발로로 간주할 수 있을 뿐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宋代와 金代의 지폐인쇄용 동판에 병용한 동자는 모두 활자 범위 내의 것이 아니며 따라서 활자인쇄는 더 더욱이 거론할 수조차 없다.

5.2 “複”자 실물

潘吉星은 이에 대하여 네 가지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활자임을 부인하였다. 필자는 네 번째 이유인 이 실물의 외형이 활자가 갖추어야 할 특징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후대의 활자 중에 형태가 가지런하지 못한 것이 적지 않은데, 이는 부착방식으로 조립하는 활자는 육면이 그렇게 방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째,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점으로, 비록 고려시대 도읍이었던 개성 근교의 고려 무덤에서 출토된 것이라고는 하나, 이는 근거 없는 설일 뿐이다.²⁷⁾ 둘째, 한개 뿐인 점으로 활자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만약에 이것이 활자라면 마땅히 다량이어야 한다. 셋째, 금속의 합금성분이 같다고 해도 반드시 같은 시대의 산물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금속의 제련기술이 뛰어나지 못하여, 원광의 광산이 같으면, 비록 시대가 다르다 할지라도 합금성분은 비슷할 가능성

26) 明 嘉靖11(1532)年 華從智刻, 隆慶6(1572)年 華察續刻本『華氏傳芳續集』, 卷15에 수록된 喬字의 會通華處士墓表: “乃範銅爲版, 鑄錫爲字(이에 구리로 인판을 주조하고 주석을 조각하여 활자를 만든다).”

27) “複”자 실물에 대하여, 흑자는 발굴조사 보고서가 있다고 하나, 이는 발굴 유물이 아니다. 따라서 발굴조사 보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이는 이왕가 시절에 구입한 것인데, 구입 경로도 분명하지 않다.

이 크기 때문이다. 넷째, 이 문자가 자주 사용하는 문자가 아닌 점으로, 활자본에서 아직 이 실물의 자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같은 네 가지 관점에 비추어 보면 아마도 활자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일본인이 한국인을 속이기 위하여 해동통보 등 유사한 청동 기물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자를 사이비 활자처럼 주조하여 고려 무덤에서 출토한 것이라고 속여서 고가에 팔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이같이 추측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배면의 움푹 들어간 형태가 다른 활자에서는 볼 수 없는 유일한 모양이다. 둘째, 활자의 배면은 조판기술과 관계가 있는데, 이것의 배면의 형태는 조판상의 아무런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만큼 조판문제와 별 관계가 없다. 이는 아마도 일본인이 조선 활자의 배면이 움푹 들어갔다는 말만 듣고, 실은 터널 형태로 배면이 들어간 것을 알지 못한 채 모조한 결과 이 같은 형태가 되었을 것이다.

5.3 「新印詳定禮文」과 「證道歌」의 跋文

「高麗史」 권23과 권129에 의하면 최이는 고종 21(1234)년에 진양후로 책봉되었다. 「高麗史」 권23과 「高麗史節要」 권16에 의하면 이규보는 고종 28(1241)년에 사망하였다. 「高麗史」 권129와 「高麗史節要」 권16에 의하면崔怡의 작위는 고종 29(1242)년에 晉陽公으로 승진하였다. 따라서 潘吉星이 지적한 진양공의 호칭에 관한 모순은 틀림이 없다.

「高麗史」의 기록을 보면 “晉陽侯”의 호칭은 모두 4번 출현하고, “晉陽公”의 호칭은 모두 5번 출현한다. 이 기록은 모두 호칭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기술하고 있다. 「東國李相國全集」²⁸⁾ 卷18, 古律詩, 제5葉上, 7行; 卷18, 古律詩, 제16葉上, 2行; 卷23, 敎書·批荅·詔書, 제17葉下, 7行 등에 “晉陽侯”의 칭호가 있어서, 「全集」은 그 칭호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8) 全集 41권 11책, 後集 12권 3책, 高麗 高宗 38(1251)년 木板後刷本, 한국은행 소장본: 819, 아72.

그러나 이 「全集」의 앞부분에 수록된 후인이 편찬한 「東國李相國文集年譜」와 그 발문을 수록한 「東國李相國後集」에 출현한 崔怡의 호칭을 찾아보면, 「高麗史」나 「東國李相國全集」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두 호칭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年譜」 丙申(1236) 公(李奎報)年六十九조에는 “晉陽侯亦以戶籍縮歲爲辭, 勉留之.”라고 되어있는데, 辛丑(1241) 公年七十四조에는 “秋七月寢疾, 晉陽公聞之, 遣名醫等問珍(診)不絕.”이라고 되어있다. 이 두 단락은 모두 晉陽公 이전의 일인데도 한 곳은 “晉陽侯”, 다른 한 곳은 “晉陽公”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東國李相國後集」 卷11, 「東國諸賢書訣評論序並贊晉陽公令述」을 보면, “晉陽公”은 3번 출현하고 “公”은 6번 출현한다. 이 「序並贊」은 崔怡가 李奎報로 하여금 쓰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崔怡의 작위가 진양후임에도 불구하고 “진양공”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 칭호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서술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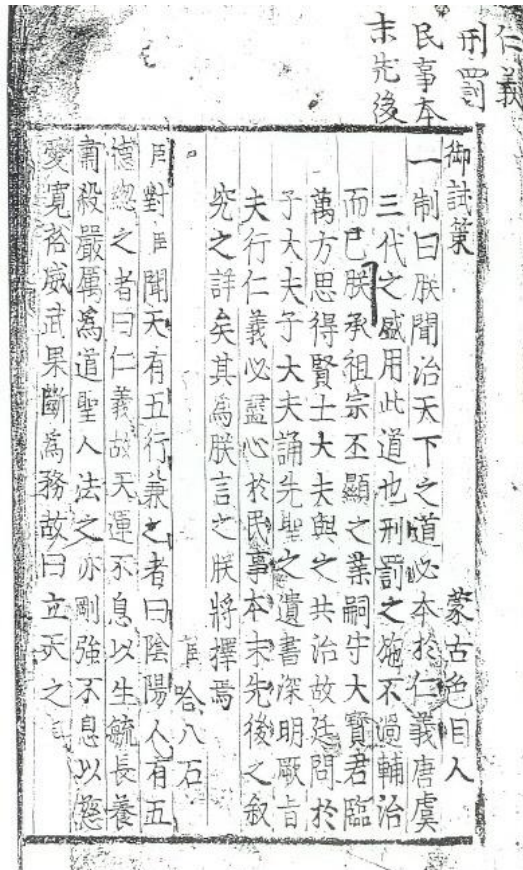
그렇다면 왜 이 칭호를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하여 쓰고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는 향후에 풀어야 할 연구과제일 것이다. 필자는 잠정적으로 후인의 역사관념이 철저하지 못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결과이거나, 또는 후인이 복각할 때 崔의 작위로 고쳐 쓴 때문이 아닌가 추론한다.

따라서 이 이규보문집의 일부분에서 崔의 칭호를 비록 부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 문집에 기록된 “鑄字印成二十八本” 등의 역사적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證道歌」의 “募工重彫鑄字本”의 역사 사실 역시 같은 이치다. 칭호의 잘못된 사용이나 발문 중의 오자나 이체자는 문집에 기록된 역사 사실의 진위 문제와는 별개이므로 기록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5.4 「御施策」

潘吉星이 元代 至正年間の 초기인 1341-1345년 사이에 北京에서 출판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속활자본 「御施策」은 한국의 연세대학교 도서관(귀313)·고려대학교 도서관(귀-148)(圖10)·영남대학교 도서관(340.1과 고042 등 2부) 등에

동일한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이는 조선의 지방정부가 中宗年間(1506-1544)에 倣乙亥小字木活字로 인출한 것이다.²⁹⁾



<圖 10> 「御施策」(韓國 高麗大學校圖書館 所藏), 제1葉上.

이 판본을 자세히 관찰하면 木活字本 중에서 조각술의 수준은 상당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엽에 나타난 동일한 문자를 비교하면 ① 문자의 크기가

29) 千惠鳳, 朝鮮朝의 乙亥小字體木活字本 「御施策」, 『書誌學研究』 15(1998. 6), 42-48.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제1葉上의 2行4字・4行4字・8行8字・8行11字의 “朕”과 5行17字・7行9字의 “於”가 그것이다. 또한 ② 문자의 모양도 차이가 난다. 즉 2行3字・10行12字・11行5字・13行11字의 “日”과 11行13字・12行16字의 “以”가 그것이다. ③ 심지어 서체가 長體이거나 扁體인 것도 있다. 즉 3行17字・5行13字의 “治”・6行3字・6行6字의 “大”・6行4字・6行7字의 “夫”가 그것이다. ④ 필획의 굵기가 다른 경우도 있다. 즉, 2行11字・7行6字의 “必”・3行4字・3行12字・4行10字・5行11字의 “之”가 그것이다. ⑤ 가로 획과 세로 획이 교차하는 곳에 도각의 흔적이 있는 것도 있다. 즉, 4行4字의 “朕”・6行7字의 “夫”・11行9字의 “天”이 그것이다. ⑥ 적지 않은 문자의 필획에 목재가 튼 목리의 현상도 있다. 즉 3行6字의 “用”・5行14字의 “故”・6行4字의 “夫”・10行8字의 “行”・10行11字의 “者”・10行14字의 “陽”・11行11字의 “不”・11行15字의 “毓”이 그것이다. 이 같은 현상들은 목활자본임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다. 이로 부터 일부 중국 측 학자의 목활자본과 금속활자본을 감별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인가를 알 수 있으며, 이같은 실수를 범하는 원인은 결론을 먼저 내린 후에 그 이유를 찾아서 역지로 합리화시킨 결과로 보인다.

5.5 金代の 千佛銅牌

臺北市 소재 中央研究院 傅斯年圖書館 소장 「金泥石屑」에 수록된 千佛銅牌를 살펴보면, 우측에는 종서된 “河東南路都僧錄特授賜紫文妙大師□善廣旋” 한 행이 있고, 좌측에는 종서된 “皇統戊辰(1148)歲次十一月日 記平陽府李稀造” 한 행이 있어서, 이 천불동패는 平陽府에 거주하던 李稀가 1148년에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두 행의 문자 행렬은 분명히 가지런하지 못하고 먹색도 다소 균일하지 못하다.

이 천불동패의 소장자는 목록에 나타난 “金千佛銅牌, 秀水王氏藏”에 의하면 秀水에 거주하던 왕씨 성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그의 행방은 알 수 없다. 기타 기물의 목록에 “某氏藏”, “上虞羅氏藏本”, “上虞羅氏手拓本”

등으로 저록된 것에 의하면, 羅씨는 아마도 왕씨가 제공한 그의 탁본을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다시금 羅振玉이 自序에 기록한 “其物皆世所罕道或已亡佚, 其打本亦皆一時所難攷者, 編爲『金泥石屑』二卷(그 기물은 모두 세상에 드물게 보이거나 이미 망실된 것이며, 그 탁본도 또한 모두 한때 고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金泥石屑』 2卷으로 편찬한다.)”에 의하면 이 저술은 금석기물의 명문을 탁본하여 편집한 탁본집임을 알 수 있다. 탁본은 인쇄술 발명을 위한 전제조건이 하나로, 그 원리는 결코 인쇄술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문자의 행렬이 가지런하지 못하고 먹색이 고르지 못한 문제에 관하여, 이 銅牌의 도판에 의하면 그 제작기술이 그다지 뛰어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동판 상의 문자와 먹색은 제작기술의 수준에 따라 반드시 모두가 가지런하고 균일한 것은 아니다. 먹색은 또한 탁본 기술의 숙련도에 따라서 균일하지 못한 현상은 흔하다. 그러므로 문자의 행렬이 가지런하지 못하거나 먹색이 균일하지 못한 현상만으로 활자판임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대하여 문자·도안·문양을 하나의 동판으로 주조한 것인데, 주조기술의 미숙으로 문자가 빠뜨어진 것이다. 동판에 동활자를 다시 배열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한 중국의 학자도 있다.³⁰⁾

『金泥石屑』 “附說”의 설명에 관하여, 羅振玉의 학문 수준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설명인 “古活字予曾得一枚, 以石膏爲之……上有紐可貫穿……泥不任印刷, 今乃知爲石膏誤以爲泥也(내가 일찍이 고활자 한 개를 입수하였는데 석고로 만들었다……위에 손잡이가 있어서 꿰 수 있고……점토는 인쇄에 부칠 수 없으니, 이제서야 석고를 점토로 오해하였음을 알겠다.)” 등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면, 羅씨는 활자인쇄에 관하여 심히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왜 하필 “한 개”만 입수하였으며, 특히 석고로 만든 것이었는가? 현재까지 필자가 목도한 모든 고활자 중에서 석고로 만들었거나 손잡이가 있는 것은 한개도 없었다. 그러므로 그가 입수한 “한 개”는 아마도 활자가 아니라, 손잡이가 있는 인장류이거나 또는 인장을 주조하는 어미 모형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30) 張秀民, 『張秀民印刷史論文集』(北京: 印刷工業出版社, 1988), 18.

6. 結 論

이상으로 금속활자의 발명 문제에 대하여 여러 학자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활자와 활자인쇄술은 宋代의 畢昇이 膠泥活字로 발명하였다.

(2) 활자인쇄술의 원리는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제1 단계는 날개이면서 복수로 활자를 제작하여야 하고, 제2 단계는 조판이며, 제3 단계는 인출, 제4 단계는 해판하여 재사용하는 것이다. 이 네 단계를 모두 갖추어야 활자 그리고 활자인쇄로 간주할 수 있다.

(3) 畢昇의 膠泥活字와 膠泥活字印刷術·高麗人の 金屬活字는 완전한 發明이다. 木活字와 木活字印刷術·金屬活字印刷術은 발명이 아니며 개량이라고 할 수 있다.

(4) 紙幣銅版에 병용한 銅字와 千佛銅牌는 활자인쇄로 간주할 수 없으며, 동판의 응용과 拓印으로 간주할 수 있다.

중국 측 학자들이 말하는 발명권에 대하여, 이른바 발명이라는 것은 그 권리가 먼저 있어서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 먼저 만든 사람이 발명한 것이 되며 그 후에 그에게 발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발명권이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발명자 저작권 또는 발명자 지적 재산권이다.

또한 상대방의 것이 아니냐든가 늦다든가 하는 주장은 간접증거일 뿐이다. 따라서 상대방은 어떻다고 논평하기 전에, 각자 자기 것을 연구하여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 후 서로의 결과를 비교하면 자연히 누가 발명한 것인가도 결정될 것이다.

최근 중국 측 학자의 주장을 보면, 역사적으로 금속을 사용한 모든 사례를 찾아내어 활자에 연결시키려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는 먼저 결론을 내린 후 그 근거를 찾아서 억지로 합리화시키려는 목적성 연구태도로서 옳은 연구태도가 아니다. 우선 객관적이 학문태도를 갖추고 연구를 진행하여야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비로소 진정한 연구일 것이다. 바라건대

국수주의를 버리고 객관적인 태도와 방법으로 연구하여 정확한 결과를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원전]

「東國李相國全集」 41권 11책, 後集 12권 3책. 高麗 高宗 38(1251)년 木板後刷本(한국은행 819, 아72).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1377年淸州牧外興德寺금속활자본(프랑스국립도서관, MSS극동부, 109).

羅振玉. 「金泥石屑」. 上海: 倉聖明智大學, 1916년영인선장본, 「藝術叢編」 1-6 (傅斯年圖書館古籍線裝書 991.05 401 V.1-6, 및 933.2 909). 1916년上虞羅氏영인선장본, 「楚雨樓叢書 初集」 4(傅斯年圖書館 990.8 909 V.4).

沈括. 「夢溪筆談」. 卷18, 技藝, 板印書籍.

王禎. 「農書」. 卷22, 造活字印書法.

「華氏傳芳續集」. 明 嘉靖11(1532)年 華從智刻, 隆慶6(1572)年 華察續刻本.

[단행본]

Bibliothèque Nationale, Le Livre, Paris, 1972.

戈公振. 中國報學史. 上海: 商務印書館, 1927. 1928. 1935. 1955. 1999. 대만판.

潘吉星. 中國・韓國與歐洲早期印刷術的比較. 北京: 科學出版社, 1997.

史金波, 雅森吾守爾. 「中國活字印刷術的發明和早期傳播」.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0.

손보기. “한국인쇄기술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편. 한국문화사대계. 서

울: 고려대학교, 1970.

張秀民, 「張秀民印刷史論文集」, 北京: 印刷工業出版社, 1988.

曹炯鎮. 中韓兩國古活字印刷技術之比較研究」, 臺北: 學海出版社, 1986.

[논문]

Fang Chao-Ying. On Printing in korea(1967). cited by Tsien Tsuen-Hsuei.

Paper and Printing. See: Joseph Needham.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V:1. Taipei: Caves Books, 1986.

谷祖英. “銅活字和瓢活字의 問題.” 「光明日報」. 1953년 7월 25일. 史學, 제9호.

김성수. “한국목판인쇄의 起源연대에 關한 研究.” 「서지학연구」 10(1994. 12).

潘吉星. “論金屬活字技術의 起源.” 「科學通報」 43:15(1998. 8), 1583-1594.

潘吉星. “論金屬活字技術의 起源.” 中國出版」 1998:11(총제95기)(1998. 11), 42-45와 1998:12(총제96기)(1998. 12), 40-43.

潘吉星, 魏志剛. “金屬活字印刷發明于韓國嗎.” 「中國印刷」 1999:1(總第73期)(1999. 1), 55-59.

魏志剛. 關於我國金屬活字版(公元1148年)技術與物證. 中國印刷博物館編. 中國印刷史學術研討會文集(1997). 北京: 印刷工業出版社, 1997, 130-133.

張秀民. 中朝兩國對於活字印刷術의 貢獻. (天津)大公報. 1953년 2월 20일 史學週刊, 제3면.

張秀民. 中國印刷術의 發明及其對亞洲各國의 影響. 光明日報. 1952년 9월 30일.

張秀民. 銅活字의 發明與發展. 「光明日報」. 1954년 3월 6일 제3면.

蔡美彪. 光明日報」. 1954년 1월 9일. 史學, 제21호.

千惠鳳. 朝鮮朝의 乙亥小字體木活字本 「御施策」. 「書誌學研究」 15(1998. 6).

프랑스 국영 TV. 1972. 6. 1. 20:00 뉴스.

